

두산 이용찬, KS 6차전서 SK 켈리와 '리턴매치'



‘잠실 에이스’ 이용찬 ‘이닝이터’ 역할 특명

올 시즌 잠실서 ERA 3.29 좋은 성적
홈구장서 3차전 패배 치욕 해소 벌려
7차전 대비 최대한 긴이닝 임무 막중

패배는 곧 시리즈 종료. 눈부신 시즌 93승이라는 팀 성적도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SK 와이번스와 격돌한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에서 2승3패로 베팅에 선 두산 베어스의 6차전 선발투수는 우완 이용찬(29)이다. 12일 잠실구장에서 열릴 6차전에서 3차전에 이어 또 한번 SK 매릴 켈리와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2018년은 이용찬에게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 2016년 말 군복무를 마친 그는 2017년 5승5패22세이브를 기록하며 마무리 역할을 했다. 그러나 평균자책점(ERA) 4.40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올해 선발 변신에 도전한 그는 외국인투수들이 각 부문 상위권을 휩쓴 가운데 국내투수의 자존심을 지키며 맹활약했다. 다승 2위(15승), ERA 4위(3.63), 이닝당 출루허용(WHI

P) 7위(1.30) 등 국내투수들 가운데선 모두 1위였다. 양현종(KIA 타이거즈), 김광현(SK)이 KBO리그를 대표하는 좌완투수라면 이제 최고의 우완투수는 이용찬이다.

그렇기에 KS 3차전은 아쉬움이 더 컸다. 1회 제이미 로맥에게 3점홈런을 맞았고, 2회 추가 실점했다. 그러나 7회 2사까지 더 이상의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다. 불펜투수의 소모를 최소화한 이용찬의 투구는 4차전 승리에 큰 힘이 됐다.

3차전에서 이용찬의 주무기인 포크볼의 커맨드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홈런공장 인천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경기였기 때문에 더 힘겨운 투구를 했다.

그러나 6차전이 펼쳐질 잠실은 다르다. 이용찬은 올해 잠실에서 ERA 3.29, WHIP 1.28을 기록했다. 시즌 전체 기록보다 좋은 성적이다. 3차전 때보다 부담은 더 막중해졌다. 7차전이 성사되더라도 선발투수들의 체력은 바다난 상태다. 치열한 혈전이 불가피하다. 그만큼 이용찬이 먼저 실점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이닝을 책임져야 두산은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두산 베어스 이용찬이 SK 와이번스와 한국시리즈 6차전에 선발등판한다. 1패가 곧 탈락을 의미하는 일리미네이션 게임에 나서는 그의 어깨에 팀의 2018시즌 운명이 걸려있다. 스포츠동아 DB

김재환 없는 두산 '득점권 0.143'



“기침만 해도 옆구리 통증”
‘김재환 딜레마’ 빠진 두산

정규시즌을 2위에 14.5게임차로 앞선 채 마감했던 강력함은 사라졌다. 두산 베어스는 SK 와이번스와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에서 2승3패로 베팅 끝까지 내몰렸다. 특히 타선에서 힘의 열세가 뚜렷하다. 부상 탓에 3차전부터 결장 중인 김재환(30) 카드를 꺼내는 '초강수'도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김재환은 7일 KS 3차전을 앞두고 타격 훈련을 하던 중 오른 옆구리 통증을 느꼈다. 당초 김태형 감독은 김재환을 3차전 4번타자로 내세웠지만, 라인업 제출 직전 그를 제외한 뒤 병원검진을 지시했다. 인천에서 한 차례 검사를 한 뒤 이튿날인 8일 구단지정병원에서도 교차 검진을 받은 결과는 외박사근 손상이었다. 결국 5차전까지 계속 결장했다. 5차전에 앞서 잠시 타격 훈련을 진행했지만 출장은 어려웠다.

김재환이 빠진 세 경기에서 두산은 5득점에 그쳤다. 특히 득점권 타율이 0.143(14타수 2안타)으로 저조했다. 장타는 하나도 없었다. 득점권 상황 자체는 SK가 24타석, 두산이 18타석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SK가 득점권 타율 0.333(24타석 6안타)으로 9타점을 올린 반면 두산은 2타점에 머물렀다.

정규시즌 139경기에서 타율 0.334, 44홈런, 133타점을 올린 해결사가 사라진 것이다. 단순히 '1~2점을 더 내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SK 투수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한결 덜할 수밖에 없다. 큰 산 하나가 사라졌으니 적극적인 승부가 가능했다.

두산 관계자는 “기침만 해도 통증을 느끼는 정도”라고 김재환의 상황을 설명했다. 통증이 여전한 김재환이 타석에 들어선다고 해도 특유의 장타를 보여준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그 낮은 가능성이라도 기대야 하는 것이 베팅 끝 두산의 현실이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두산 윤수호 “KS 엔트리 합류만으로도 큰 행운”

강산의 가을통신

‘부상’ 김강를 대신할 파이어볼러
“언제든 등판할 수 있게 멘탈 관리”

두산 베어스 윤수호(26)의 한국시리즈(KS·7전4선승제) 엔트리 합류는 극적으로 이뤄졌다. 트레이드 마감시한(7월 31일)을 하루 앞두고 이우성과 맞트레이드를 통해 NC 다이노스에서 두산으로 이적할 때만 해도 취약점으로 손꼽히던 두산 불펜에 적잖은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를 받았지만 새 유니폼을 입고 거둔 성적은 11경기 1패, 평균자책점 10.90에 불과했다. 스스로도 실망감이 컸다. 그 역시도 “KS 엔트리 합류

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정규 시즌 막판까지 경쟁하는 입장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윤수호는 지금 두산의 KS 엔트리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파이어볼러 김강물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이탈한 탓에 윤수호의 비중도 조금은 커졌다. 빠른 공을 던지는 불펜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시즌 NC에서 40경기 2승1패1홀드, 평균자책점 5.36으로 경쟁력을 보여준 점도 기대를 키우는 요소다. 이에 윤수호는 “(김)강물이 형과 비교라니. 어휴”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그저 상황에 맞게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버티다 보니 엔트리에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이 내 앞에 펼쳐진 것 아닌가. 가족



윤수호

들도 많이 축하해줬다”고 밝혔다. KS에서 2승3패로 뒤져 있지만, 두산은 명실상부 리그 최강팀으로 손꼽힌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2018 정규시즌 우승(93승51패)을 거머쥐기도 했다. 이는 윤수호가 처음 팀에 합류했을 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더니 잘 안 되더라. 막판에는 ‘오늘 한 경기 후회 없이 던지자’고 마음을 고쳐 먹어니 한결 나아지더라.” 윤수호의 말이다.

‘최강 두산’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성장의 밑거름이라고 했다. “선배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 경기가 끝나고도 기본 1시간씩 운동을 하고 퇴근한다. 그런 모습을 보니 ‘강물’의 DNA가 정착될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그렇게 프로다운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다 보니 커리어를 쌓는 데도 큰 도움

이 된다. 이번 KS도 하루하루가 최고의 순간이다. 좋은 팀에서, 멋진 상황을 직접 보고 즐기고 있다. 그 자체로 엄청난 행운이다.”

윤수호는 5차전까지 한 번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지만, 파이어볼러가 필요한 상황에선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카드다. 그러다 보니 멘탈(정신력) 관리가 필수다. 체육인 출신 부모로부터 받는 조언이 큰 힘이 된단다. 윤수호의 아버지는 윤재명 전 쇼트랙 대표팀 감독이고, 어머니는 한국쇼트트랙 최초 동계아시아게임(1986삿포로) 메달리스트 유부원씨다.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 할 때면 아버지께서 ‘마운드에서 그저 재미있게 던져라. 공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씀하신다. 평소에도 부모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눈다. 두 분 모두 운동을 하면서 최고의 자리를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 조언 하나하나가 멘탈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 스포츠부 기자 posterboy@donga.com

SK 정경배 코치 “정권이랑 강민이 활약 뿌듯”

베테랑 박정권·김강민의 오랜 스승 때로는 악역 자처... ‘야구 오래하길’

붉은 유니폼을 입고 왕조 시절을 함께 누리던 사이이다. SK 와이번스 정경배 타격코치는 여전히 뜨거운 박정권, 김강민의 ‘가을’이 자신의 일인 듯 기쁘다.

바야흐로 베테랑의 계절이다. 플레이오프(PO)~한국시리즈(KS)로 이어진 SK의 포스트시즌(PS)은 박정권과 김강민을 빼놓

고 설명할 수 없다. PO에서 시리즈 MVP(최우수선수)에 오른 김강민은 KS로 무대를 옮겨서도 5차전까지 3할 타율(5타점)로 연일 맹타를 휘두르는 중이다. ‘가을 사나이’ 박정권도 적재적소에서 4타점을 올렸다. 둘의 존재만으로도 SK 타선엔 묵직한 무게감이 생긴다.

한 발 뒤에서 둘을 바라보는 정 코치의 마음도 내심 뿌듯하다. “정권이와 강민이 잘하면 나도 정말 기쁘다. 같이 뛰던 선수들이 몇 명 없는데다가 저런 베테랑들이



정경배 코치

잘 해야 후배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며 미소 짓는다. “이번 PS에서도 둘이 많은 역할을 해줬다. 강민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수비를 잘한다”며 “전성기에 버금가는 실력을 유지하고 있고, 후배들을 이끌어갈 힘도 있다. 둘 다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선수들”이라고 강조했다.

“박정권, 김강민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할 만큼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다. 둘이 1군에 합류하지 못하고 고전할 때면 앞장서 싫은 소리도 참 많이 했다. 흔들

리는 둘 앞에선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다. 정 코치는 “동료이기도 했고, 내 후배이기도 하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게 육도 참 많이 먹었다”고 설명했다. 후배들이 최대한 오래도록 그라운드에 남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정권이 몸을 보면 마흔이 넘어서도 야구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렇게 됐지만, 너희는 좀 더 오래 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34~35살이 넘어가면 연습으로 극복해야 한다. 둘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훨씬 더 오래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 코치의 진심이 묻어났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